

석유화학, 입사 경쟁률 91대 1

인크루트, 상장사 평균 71대1보다 높아 ... 대기업 경쟁도 치열

2010년 석유화학기업의 입사 경쟁률이 91대1로 집계됐다.

취업·인사포털 인크루트는 2010년 채용을 한 상장기업 368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71대 1로 집계됐다고 12월28일 발표했다.

1만7195명 모집에 122만1715명이 지원한 것으로, 2009년 78대 1 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.

업종별 경쟁률은 건설이 178대 1로 1위였고 정보통신 121대 1, 자동차 101대 1, 유통무역 99대 1, 석유화학 91대 1, 금융 82대 1, 식음료 79대 1, 물류운수 76대 1 등이 뒤를 이었다.

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업종은 24대 1을 기록한 전기전자였다.

규모별 입사 경쟁률은 대기업이 90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(80대 1)과 중소기업(33대 1) 순이었다.

<화학저널 2010/12/28>